



가톨릭의사협회 | 가톨릭간호사협회 | 가톨릭약사협회

가톨릭의사협회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제39차 총회 및 피정 개최
- 신임회장으로 박장상 교수 선출 -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지난 3월 24일~25일 충청북도 청원 보혈선교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2007년도 제39차 전국교구회장단의 총회 및 피정을 개최하였다. 1969년에 창립된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전국의 교구별 가톨릭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구별 가톨릭의사회의 협의체로서, 이번에 개최된 총회 및 피정에는 최영식 지도신부, 박용휘 고문, 강준기 명예회장, 나중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각 교구의 가톨릭의사회 임원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고 특강, 십자가의 길, 고백성사, 총회, 파견미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날 진행된 특강에는 청주성모병원 이현로 병원장이 ‘복음삼덕(福音三德)’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으며, 이어서 십자가의 길 행사가 진행되었다. 참석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개최된 제39차 총회에서는 전년도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2007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2008년도 총회 및 피정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전국 교구에서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배려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어서 새로운 회장으로 박장상 교수(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혈관외과)가 선출되었다. 박장상 교수는 2007년도부터 3년간 ‘한국가톨릭의사협회’를 맡아 운영하게 된다. 신임회장 박 교수는 ‘가톨릭의료협회’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해외의료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방법을 모색하기 등 세 가지 운영방침을 강조했다.

가톨릭간호사협회

한국가톨릭간호사회 (회장 박혜자) 보수교육

- 일시 : 2007. 6. 20 (수) 9:00~17:40
- 장소 : 가톨릭중앙의료원 의과학연구원 1002 강의실
- 주제 : 성가정과 가족건강 - 노인을 위한 전인적 돌봄 -

성가정과 가족건강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에 노인의 여가관리(박혜자 회장), 노



인 부양자의 역할과 스트레스(김영애 교수), 노인의 이해(김남초 교수), 노인의 건강관리(송경애 교수), 노인의 영적 치유(문중원신부)등의 강의를 있었으며 총 104명의 간호사가 참석하였다.

2007년도 전국 간호대학생 피정

- 일시 : 2007. 6. 30 (토) 17:00~7. 1 (일) 16:30
- 장소 : 성베네딕도회 수도원 서울 피정의 집
- 피정강의 : 김종필(빨리가르뽀) 수사신부
- 주제 : 우리의 삶을 위하여(LECTIO DIVINA 중심으로 함)

총 25개교 42명의 간호대학생이 참석하였다. 전국의 간호대학생들이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 같은 신앙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쉽게 가까워졌으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만남이 지속되길 바라며 다음 만남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가톨릭약사협회

성가복지병원 후원

가톨릭 약사회(회장 이강추 토마스모어)는 지난 2월 10일 “성가복지병원”을 방문하여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외롭고 어려운 분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그분들의 질병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2005년 9월에 소외된 이들을 무료로 입원 치료해 주고 있는 “성가복지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가톨릭 약사회는 매주 약사 1~2명이 병원 약국에서 약품 투약 봉사를 하며 급식소에서 급식 봉사도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10일(토) 전국 총회 및 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의정부, 동두천 지역 1,300여 명 회원의 명단을 파악하여 정리를 완료하였다.

